



9면

안상낙화놀이보존·개성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8월 9일 월요일 (음 7월 2일) 제2838호

대표전화 (063)288-9700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전북도, 정부 비수도권 3단계 연장 발표 따라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유지·직계가족 모임도 예외 없어
김제·부안, 15일까지 유행상황 관찰 후 자체 결정기로

정부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단일화 조치도 동일기간 2주간 연장한다.

정부는 휴가철 이동 수요 증가와 피로감 누적으로 인한 국민 참여 저하, 델타형 변이가 우세종으로 증가하면서 빠른 감염속도와 전파력으로 인해 확실한 확산 차단에 어려움이 있어 현 단계 거리두기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연장 조치는 휴가철 및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시켜 수도권 일평균 800명대로 저하(현재 900~1,000명대), 비수도권은 유행증가 차단과 감소세 전환을 목표로 하고 2주 후 단계를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향후 거리두기가 2~3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 의견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방역수칙을 정비한다.

비수도권 사적 모임 4인까지 허용 조치를 2주간 연장하고, 직계가족 모임도 예외없이 4인까지로 강화한다. 사회적 접촉 최소화를 위해 3~4단계에서 시·도별로 다른 사적모임 예외사항도 통일되게 조정해 더욱 엄격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인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혁신도시·부안

과 2단계 지역인 정읍·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완주 혁신도시 제외지역은 현 단계 그대로 2주간 연장한다.

다만, 단기간 환자수 급증으로 거리두기 3단계로 자체 격상한 김제시(2~15일)와 부안군(2~15일)은 15일까지 지역 유행상황을 관찰한 후 자체 결정(연장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도내 전 지역에 대해 사적모임은 4인까지로 제한하고, 직계가족도 4인까지로 제한한다. 직계가족은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도내 전역 직계가족은 인원제한이 없었지만 8월 9일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직계가족도 4인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완료자(백신접종 2차(안젠은 1차)까지 완료 후 만 14일 경과)는 사적모임 예외사항으로 만남이 가능하다.

전북도는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가 혼재돼 있어 시·군별 사적모임 예외사항이 다르다면 주민 혼란, 휴가철 원정모임 등 풍선효과가 우려돼 시·군 의견수렴 후 통일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그 밖에 행사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정부의 단계별 강화된 방역수칙을 따른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낮은 방역수칙 조정으로 혼란스럽겠지만, 그만큼 긴박한 유행상황 속에서 국민불편 최소화를 고민하는 정부 방역 당국의 조치인



송하진 도지사와 악수 나누는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6일 전북 도청을 찾아 송하진 도지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만큼 적극적으로 따라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현재 주민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방역당국의 조치에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백신접종 동참과 기본 방역수칙 준수 증상이 의심되면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통해 개인 안전은 물론 지역내 전파를 차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

지역경제 살리기 '마중물'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도민 98% 수령
1개월여동안 1400억 가량 사용 '성공적'
내달 3일까지 2차 배부기한 설정·운영

전북도가 코로나19로 빼앗긴 일상회복을 되찾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도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7월 5일부터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을 통해 일제히 지급 개시한 긴급재난지원금이 1개월 만에 전 도민 180만1,000명 가운데 98%에 육박하는 176만 5,000여명이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수령했으며, 지원금 사용률은 1,400억원 정도(75%)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초에 '전북도 전도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발표 이후, 도의회의의 신속, 긴밀한 협치를 통해 조례제정과 예산 1,800억원 편성했으며, 6월 21일 지급기준일로 삼아 지원대상자 명부를 확정(180만1,412명)하고, 7월 5일부터 신청·지급을 개시했다.

이후, 1차 지급기한인 이달 6일자로 98%에 해당하는 도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당초 계획한 1차 배부완료 시점인 6일까지도 신청과 지급을 수령하지 못한 5만명 정도의 도민들에게는 오는 9월 3일까지 각 시·군이 현장상황에 맞춰 배부기간 연장을 물론 지역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도와 시·군은 이미 재난지원금 지급이 2주만에 도민의 88%가 수

령하면서 방문신청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각 읍·면·동 현장 지급과 병행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 다양한 교부방법을 추진해 오고 있는 상태다.

도는 9월 3일까지 2차 배부기한을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지급까지 수령하지 못한 도민들에게는 주소지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 문의를 통해 편리한 수령방법을 안내받으면 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긴 시간동안 잘 참아내고 이겨준 도민들에게 거듭 감사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적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도 도에서 마련한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평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한 지역경제를 살리기를 위해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용에 동참해 소상공인 경제회복에 희망을 불어넣어주시는 것에 거듭 고맙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8월 한달 동안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전액 사용되고, 이어서 9월부터 국가 소상공인지원금이 사용된다면 우리지역의 경제는 분명히 차츰차츰 소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8월 중에는 아직까지 사용하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전액 사용하도록 180만 전북도민의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효상 기자

전북도가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전북신보'), 국민은행,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일부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희생 '보듬자금 금융지원' 특별보증을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보듬자금 금융지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로 폐업위기에 몰린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전북도와 금융기관이 함께 60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 오늘부터 하반기 '보듬자금 금융지원' 확대 시행

상반기 시행 13일만에 조기 소진 등 소상공인에 큰 호응 얻어
도 5억, 우리·국민은행 11억원 출연 재원... 신보, 200억 지원

전북도는 상반기 '보듬자금 금융지원' 특별보증이 영업일 13일 만에 조기 소진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 확대 요구가 높아 이에 부응하고자 하

반기에 확대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출연재원은 전북도 5억원과 우리·국민은행 11억원, 총 16억원이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200억원 규모(출연금 12배수)의 보증지원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매출액 감소기업,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임차료 납부 등 3개 분야다. 업체당 최대 2~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보증기간 8년이다.

전북도가 3년간 2% 이하 차액을 보전해 실제 금리 1% 내외의 저리 융자가 가능하다.

또한 상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상담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www.jbaedil.or.kr)이나 고객센터(☎30-3333)를 활용하면 된다.

상담 일시를 예약해 전북신보 본점 및 관할 지점 방문도 가능하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

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은 매출 급락과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로 폐업 또는 생계 절벽에 직면했다"라며 "보듬자금 금융지원 확대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회생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엄마! 물이 진짜 맛있다. 근데 이 물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윙진안에 있는 용담호에서 진안군민이 청정하게 지켜준 덕분에 맑고 깨끗한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잖아!

용담호

진안군원 진안군